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

임기 2018월드컵 본선 “최선 다해 좋은 성적”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게된 신태용 감독이 소감을 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경기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기술위원회를 열고 신태용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공식 발표했다. 신태용 감독의 임기는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까지다. 신 감독은 축구협회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대표팀 감독에 부담해 부담이 되지만 축구협회 관계자와 기술위원회 분들께 감사하다.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내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이어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부담이 되지만 ‘소방수’라는 역할이 다들 믿고 맡기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술위원회가 신태용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낙점하면서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을 향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됐다.

현재 한국(승점 13)은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에서 이미 본선행을 확정된 이란(승점 20)에 이어 조 2위를 유지하고 있다. 3위 우즈베키스탄(승점 12)과는 승점 1점차다. 한국의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직행 여부는 이란(8월31일), 우즈베키스탄(9월5일)과의 남은 두 경기 결과로 결정된다. 신 감독은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란전 휴경기 무조건 이겨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회 연속 진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올스타전 감독 추천선수 나성범·배영수 등 확정

KBO, 오는 14일·15일 대구서 올스타전 개최

KBO는 오는 14일과 1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는 2017 타이거뱅크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감독 추천선수 24명의 명단을 5일 확정해 발표했다.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에서 각각 12명씩 추천됐다. 드림 올스타는 두산 김태형 감독의 추천으로 켈리, 이재원, 한동민(이상 SK), 박세웅, 손승락, 전준우(이상 롯데), 실창민, 장필준, 조동찬(이상 삼성), 피어밴드, 이해창, 박경수(이상 kt)가 선정됐다.

나눔 올스타를 맡게 된 NC 김경문 감독은 김진성, 원종현, 모창민, 나성범(이상 NC), 김상수, 김하성(이상 넥센), 임찬규, 유강남, 이형중(이상 LG), 배영수, 정우람, 최재훈(이상 한화)을 선발했다. 감독 추천선수로 선발된 선수들 중에는 연속 시즌 올스타전 출장 기록을 이어가는 선수들이 눈에 띈다.

NC 나성범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올스타(베스트2, 감독추천3)에 선정됐다. SK 이재원은 4년 연속, 넥센 김하성과 롯데 손승락, 한화 정우람 kt 박경수는 3년 연속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오랜만에 올스타전에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도 있다. 한화 배영수는 2008년 이후 9년 만에 올스타 유니폼을 입는다. 삼성 조동찬도 2010년 이후 7년 만에 올스타 무대에 선다. 이번 올스타전에 선정된 감독 추천 선수 24명 중 올스타전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는 모두 10명이다.

드림 올스타에서는 장필준, 피어밴드(이상 투수), 이해창(포수), 한동민(외야수) 4명이다. 나눔 올스타는 원종현, 김상수, 임찬규(이상 투수), 유강남, 최재훈(이상 포수), 이형중(외야수) 등 총 6명이다.

이 중 원종현과 김상수는 2006년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11년 만에 올스타전에 초대 됐다. 최재훈은 2008년 데뷔 이후 9년 만에 감독의 올스타 무대를 밟는다.

베스트12 선수들을 포함해 구단 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올스타 선수를 배출한 KIA가 8명을 비롯해 두산이 6명, NC, 롯데, 한화, 삼성이 각 5명, SK와 kt가 각 4명, 넥센, LG가 나란히 3명의 올스타 선수를 배출했다.

뉴스

‘왼발 부상’ 류현진, 10일 DL 등재...전반기 마감

검사결과 이상 없지만 구단 배려 차원 휴식

류현진(30·LA 다저스)이 부상으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LA 다저스는 5일(한국시간) 류현진이 10일짜리 부상자 명단(DL)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유는 지난달 29일 LA 에인절스전에서 왼발에 타구를 맞은 부상 때문이다. 엑스레이 검사결과 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지만 다저스 구단이 배려 차원에서 휴식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는 10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서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치른 후 15일부터 말린스파크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 3연전을 시작으로 후반기에 돌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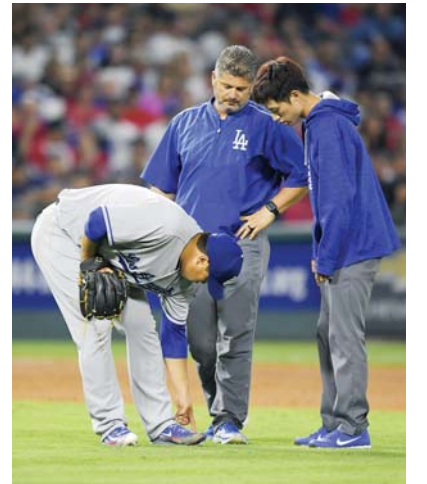
류현진의 등판 일정은 몸상태를

보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류현진은 우려 속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2년을 쉬고 돌아온 탓에 ‘풀타임 소화능력’과 ‘구위 회복’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많았다.

류현진은 순조롭게 재활을 마치고 마운드에 설 수 있는 몸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과거의 구위를 완벽하게 찾지는 못했다. 특히 날카로운 투구를 보이면서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불펜 투수로 뛰기도 했다.

절치부심한 류현진은 지난 5월26일 불펜투수로 나온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40년 무실점 세이브로 견제함을 알렸고 바로 다음 경기인 6월1일 세인트루이스전에 선발로 복귀해 60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다. 이후 일본인투수 미에단 겐타 등 경쟁한 선발전투의 경쟁 속에서 5선발 자리를 차지했다.

류현진은 올해 14경기(13경기 선발)에 등판해 3승 6패 1세이브에 평균자책점 4.21을 기록했다.

“우리도 어이없다” KIA 타선, 공포의 남량특집극

연속 두자릿수 득점 기록, 한미일 신기록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덕아웃에 있으면 웃음 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신기해서요. 저희도 어이가 없어요” (최형우)

KIA 핵심타자인 최형우(34)는 최근 팀 타선의 폭발에 대한 질문에 너털웃음을 지었다. KIA는 지난 6월 27일 광주 삼성전부터 4일 인천 SK전까지 무려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이는 KBO 리그 종전 기록(2015년 롯데·NC 4경기)을 훌쩍 넘어섰음 물론, 한미일 최고 기록이었던 1929년 뉴욕 자이언츠(현 샌프란시스코)의 6경기마저도 깨뜨리는 대업이었다.

그 핵심에 있는 최형우는 4일 경기를 앞두고 이 기록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타자들은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데, 확률적으로 6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이었다. 사실

상 기록에 가까운 일이었다. 실질적으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올 확률을 대입해 7경기 연속이 나올 가능성을 산출하면 0%에 수렴하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KIA는 사실상 없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런 최형우는 비결을 묻는 질문에 곱곰하게 생각하더니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과화적인 설명(?)을 포기했다. 말투에는 ‘실마 7경기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심정까지 읽혔다.

하지만 그런 최형우부터 시작, KIA 타선은 또 터졌다. 마치 KIA 타선에 불가능은 없는 듯 했다.

KIA 타선은 4일 경기에서도 과학이나 통계를 비롯한 화려한 타격감 을 선보였다.

SK 에이스 메릴 켈리를 상대로 1회 4점, 2회 5점을 내며 일찌감치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오더나 4회 나지원의 적시타로 기어이 10점을

채우고 한미일 신기록을 썼다.

이날 KIA는 사실상 승부가 갈린 6회 이후로는 사실상 내일 경기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홈런 두 방을 포함해 장단 17안타를 몰아치며 SK 마운드를 폭격했다. 15득점이었다.

KIA는 이 7경기 동안 팀 타율이 무려 4할1푼8리. 팀 OPS(출루율+장타율)가 1.132에 이르렀다. 홈런 12방을 포함, 7경기에서 나온 안타만 119개였고 94득점을 뽑았다.

4월 한 달 동안 kt가 25경기에서 낸 점수가 78점, 5월 한 달 동안 LG가 24경기에서 낸 점수가 99점이었다. KIA 타선이 얼마나 달아올랐는지를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좋은 타자의 조건인 3할을 치고도 적어도 이 기간 중에는 명함조차 못 내민다. 최형우(.600), 이범호(.480), 서동욱(.476), 이명기(.469), 김신민(.464), 버나디나(.429), 김주찬(.414)이 4할 이상의 타율로 타올랐다.

여기에 4일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던 나지원과 김민식까지 멀티히트 대열에 동참하며 방점을 찍었다. 어디서 터질지 가능하긴 하지만 어려운 짜임새다.

이런 KIA 타자들의 가꿀만한 방망이에 상대 마운드는 녹아내렸다. 특히 각 팀을 대표하는 외국인 선수들의 기록지가 지저분해졌다. 데이비드 허프(7이닝 4실점)나 헨리 소사(5이닝 7실점)는 지나고 보니 그나마 선방한 축에 속했다. 앤서니 레나오(5이닝 9실점), 제크 페트릭(20이닝 14실점), 메릴 켈리(20이닝 9실점)는 평균자책점이 눈에 띄게 치솟을 정도로 복귀 불가능한 내상을 입었다.

상대 마운드로서는 남량특집보다 더 무서운 충격과 공포다.



광주FC, 기성용 옛 동료 맥긴 영입

K리그 클래식 잔류를 노리는 광주FC가 창단 이래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했다.

광주는 북아일랜드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으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애버딘에서 활약한 니얼 맥긴(29)을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173cm 73kg의 다부진 몸을 지닌 맥긴은 힘과 스피드 결정력을 두루 갖춘 전천후 공격수라는 평가다. 직접 해설하는 능력 뿐 아니라 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타적인 플레이도 강점이다.

맥긴은 북아일랜드 축구천재로 불리며 19세 때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현재까지 A매치 50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했다. 지난해 유로 2016에서는 우크라이나전 패기말로 북아일랜드의 사상 첫 16강 진출을 이끌었다.

2008년 북아일랜드 1부리그 데리 시티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 맥긴은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과 브렌트퍼드, 애버딘을 거치며 330경기 85골 62도움을 기록했다.

2012~2017시즌 동안 뒀은 애

버딘에서는 5시즌 중 4시즌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는 등 68골 54도움을 올렸다.

셀틱 시절에는 기성용, 차두리와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광주는 맥긴 영입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기성용 단장이 정환주 대표와 상의 끝에 직접 북아일랜드로 건너가 선수와 교감을 나눴고, 오랜 기대 끝에 이적을 이끌어 냈다.

맥긴은 “구단의 적극적인 관심에 한국행을 선택했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약을 기대한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약을 기대한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약을 기대한다.”

기 단장은 “맥긴은 광주의 창단 이래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외국인 선수다. 반드시 K리그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한다”며 “스코틀랜드 시즌이 끝났지만 지난달 월드컵 예선전에 나서는 등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 빠르게 경기에 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임즈 ‘연타석 홈런’ 김현수는 무안타 침묵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출신 에릭 테임즈(31·밀워키 브루어스)가 연타석 대표를 쓰아올렸다.

반면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무안타에 그치며 희비가 엇갈렸다.

테임즈는 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2홈런) 2타점 1볼넷 2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초반 매서운 타격감을 자랑했던 테임즈는 5월 들어 주춤하더니 6월 한 달 동안 타율 0.163(92타수 15안타)에 그치며 타격 부진에 시달렸다.

그러나 지난 2. 3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연속 안타를 때려내며 타격감을 되찾았고, 이날 홈런 두 방을 몰아쳤다.

3일 마이애미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낸 테임즈의 시즌 타율은 0.243에서 0.248(262타수 65안타)로 올라갔다.

한편 김현수는 이날 밀워키가 우완 투수 지미 넬슨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6회초 대타로 출전했지만, 2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0.234에서 0.229(109타수 25안타)로 낮아졌다.

밀워키는 테임즈의 홈런 두 방과 선발 넬슨의 7이닝 1실점(비지책점) 호투를 앞세워 6-2로 이겼다.